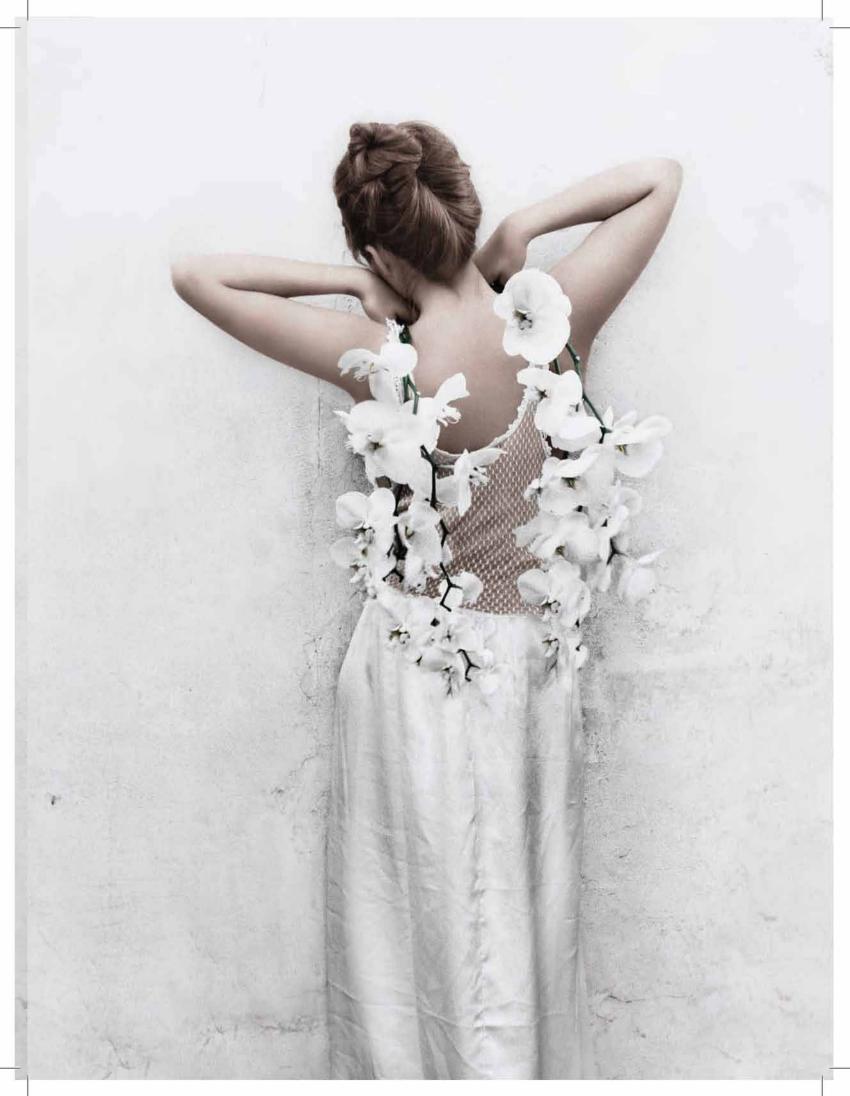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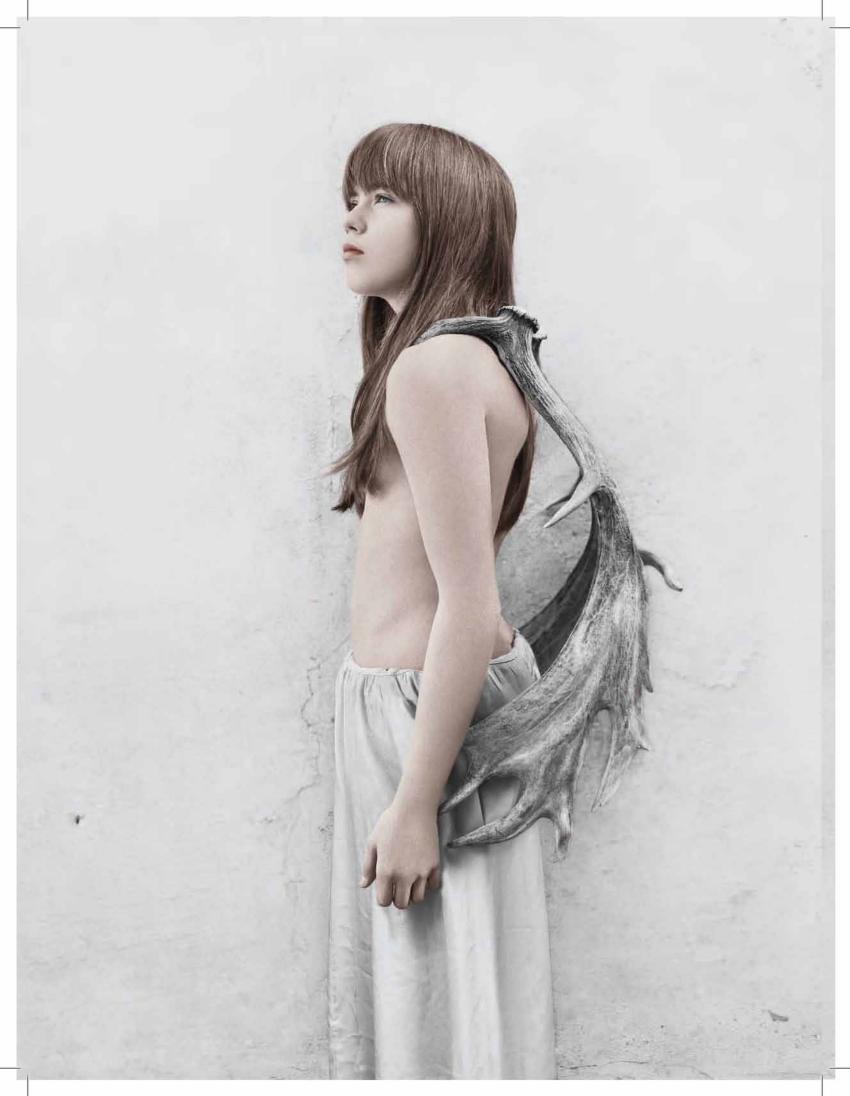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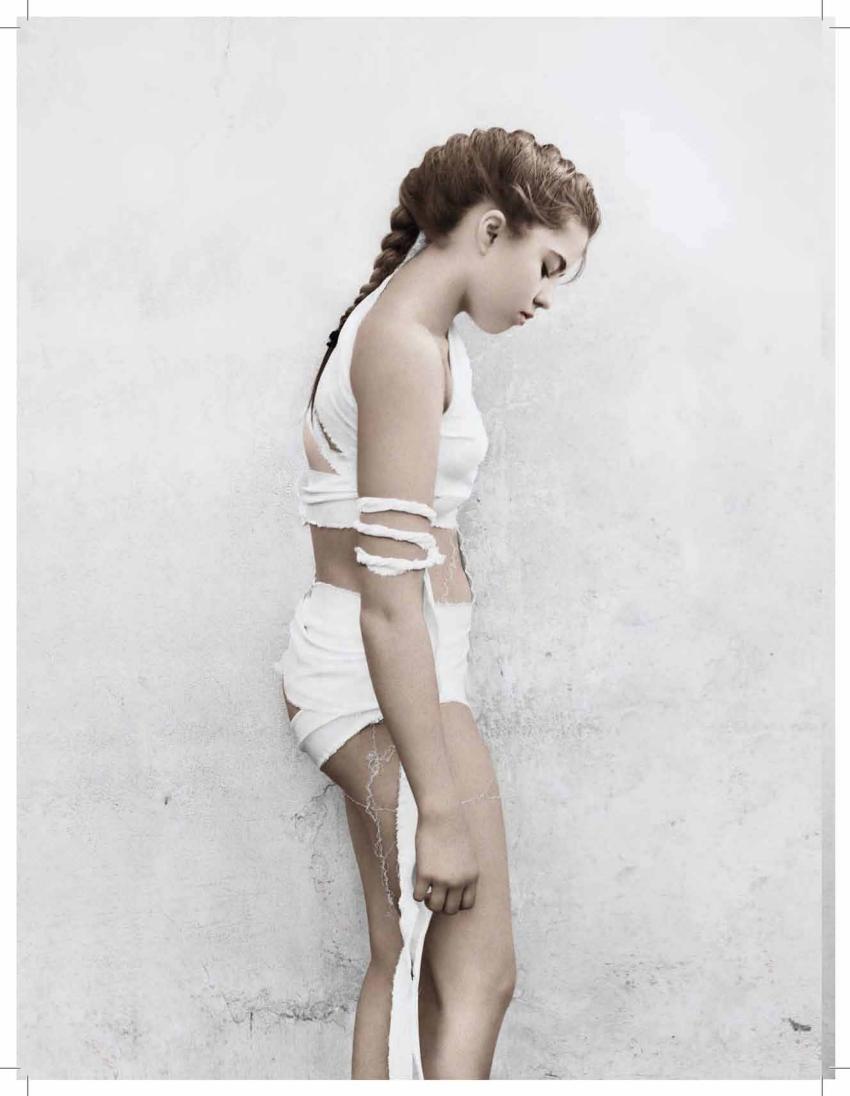
PHOTO[‡]













피어나는 '순간의 아름다움'

Thirteen 비스피어스



모든 사람은 성장한다. 누군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노래하는 때가 찾아온다. 비 스피어스는 그 순간이 '13살'이라 말한다. 그는 자신의 딸이 아이에서 독립된 여성으로 변화하는 13살의 순간들을 기록했다. 그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꽃이 활짝 핀 순간이 아닌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태동에 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Thirteen)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시리즈 〈Thirleen〉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완성한 신작이다. 당시 13세였던 내 딸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며 아이에서 젊은 여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딸은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듯이 무척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작업 역시 긴박하게 진행해야 했다.

딸과 함께 사진직업을 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다.

그렇다. 딸과 함께 작업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사진으로 딸의 모습이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딸과 나는 평소 대화가 많이 교감하는 과정을 거치며 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소품, 헤어, 의상 등을 준비하는 데 적잖이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다.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지혜를 얻는 것. 예를 들어 까마귀가 등장하는 사진은 북유럽 신화에서 영감을 얻어 촬영한 것이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오단이란 신은 두 마리의 새를 갖고 있다. 하나의 이름은 '생각(Though)', 다른 하나는 '마음(Mind)'이라고 불렸다. 신은 어두컴컴한 미명에 새들을 세상으로 보내 지혜를 모이오게 했고 새들은 해질녘씀 돌아와 세상에서 들은 것들을 주인에게 들려준다. 내 딸이 지혜로운 마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조금씩 키우다 언젠가는 떠나갈 것을 알고 있다. 또 지금은 마치 새처럼 지혜를 모으고 자유를 향한 날갯짓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새장이 연상되는 드레스를 만들기도 했다. 사진에 등장하는 모든 소품과 의상은 변신과 자유에 대한 상징성을 담고 있다.

당신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처럼 딸에게도 오직 흰 드레스만 입혔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난 것인가.

흰색은 기본적으로 순수함과 영혼, 영원 등의 의미를 지녔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지가 '투명성'을 지나길 원했다. 지극히 가볍고 여린 느낌 말이다. 때문에 나는 거의 모든 색감을 배제해야 했다.

의상과 헤어스타일, 일관적으로 사용한 회색 벽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리즈는 거의 모든 작업을 나 홀로 진행했다. 헤어스타일과 의상도 마찬가지다. 주제와 맞는 의상을 찾기가 어려워 애를 먹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매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요소들과 소품들을 찾아야 했다. 회색 벽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포착할 때 사용하는 공통된 요소다. '모델은 항상 변화하지만 배경은 언제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다.

(Thirteen) 사리즈 외에도 최근 아이들을 주제로 다양한 사진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내 딸의 생일파티를 기점으로 이이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 사진을 찍었을 때 아이들은 8, 9살이었다. 시간이 흘러 〈Thirleen〉시리즈를 찍을 때 내 딸은 13살이었다. 매년 생일파티가 열릴 때마다 이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따라가듯 사진으로 담을 계획이다. 아이들은 이제 14, 15살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딸과 작업할 때 느끼는 사진의 매력은 무엇인가.

가장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순간은 딸이 카메라 암에 서고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져 내가 원하는 한 순간의 마법을 부릴 때다. 셔터를 누르며 나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내가 원하는 마법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것을 말이다. ☎



비 스피어스 Vee Speers

호주 출신, 브리즈번에 있는 예술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이후 시드니 ABC 방송국에서 5년간 스틸 사진가로 일했다. 지난 1990년부터 그녀가 '무한한 영감을 주는 도시'라 부르는 마리를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런던, 마리, 뉴욕, 시드니 등 전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전시를 열었고 (Zoom), (Public Art), (The Sunday Times UK) 등의 매체에 소개됐다.

www.veespeers.com



